

## 철학사입문코스Ⅳ

### 제3강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사상 1

#### 제3강 1교시

##### ◆ 데카르트의 사상 1

서구 사상은 18세기를 분기점으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근대적인 사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통 사상의 핵을 형성했던 생명, 영혼/정신, (서구의 경우) 神 등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며 기계론의 일반화가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헬라스의 형이상학과 유태-기독교적 종교라는 두 축의 붕괴를 뜻한다. 인간의 이성이 사유의 중심에 놓이고 경험주의 인식론이 등장하게 되며,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해체된다. 이러한 과정 전반을 주도했던 사상적 경향을 ‘계몽(啓蒙=enlightenment)’ 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런 과정은 근대 내내 서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계론적 사유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생명, 영혼/정신, 문화를 새로운 토대 위에 구축하게 된다. 3강은 생명의 문제를 4~6강은 영혼/정신의 문제를, 7~9강은 문화/사회/정치의 문제를 다룬다.

##### ▲무한/神의 사유

서구 철학의 경우 전통과 단절하기 위해서는 중세적 신 개념으로부터의 일탈, 단절이 필요했다. 중세 사유가 발견한 중요한 한 가지는 현실적 무한이다. 현실적 무한은 잠재적 무한과 구별된다.

apeiron (1)indefinite(不定, 일정하지 않은)  
(2)infinite(무한)

그리스 사람들은 아페이론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아페이론은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성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 음악에서 음 자체는 indefinite한 것이지만 하나의 코드를 누르면 화음이 나온다.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형상/이데아/에이도스이다.

그리스 철학사는 아페이론을 정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페이론이 hybris(광기, 오만불손)로 나타날 수도 있고 不義로 나타날 수도 있다.

<infinite가 부정적인 이유>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세계관이다. 그런데 그리스의 무한은 현실적 actual인 무한이 아니다. 이러한 무한은 즉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제논의 역설에서처럼 무한히 분할하며 조작할 수 있는 무한의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virtual infinity, 즉 **잠재적 무한**이다.

⇒ 그리스철학에는 없던 **현실적actual인 무한이 중세철학에 등장한다.**

회화사를 공부하다 보면 근대미술보다 중세미술이 오히려 상상력이 풍부한 경우가 많다. 중세미술이 근대미술보다 형태를 더욱 자유분방하게 그린다. 이는 바로 중세의 현실적 무한 개념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 **현실적 무한은 신을 사유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단적인 무한으로서의 무한 개념은 神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가 되었다.(이 신은 유대-기독교 신의 성격과 순수 이론적 신의 성격 사이에서 진동했다) 그러한 우주는 유한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 우주의 무한에 대한 갖가지 담론들이 등장하게 된다.(조르다노 부르노) 이런 무한론의 전통은 17세기까지 이어진다. 17세기의 형이상학자들(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칼, 말브랑슈, 라이프니츠, ...)은 무한의 담론을 펼쳤다.

⇒ 이 무한에 관한 이야기가 몰락하면서 본격적인 근대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다.

#### ▲데카르트의 사상

기계론을 제시한 당사자 데카르트의 경우는 어떤가? 데카르트는 모든 물체들을 ‘res extensa’로 파악했으나, 영혼과 신만은 전혀 다른 실체로 보았다.(‘실체적 구분’) 영혼은 ‘res cogitans’로 파악되었다.

**중세철학의 중요한 용어 중 하나로 실체적 구분이 있다.**

영혼은 thinking substance(사유하는 실체)이고 물체는 extended substance이다.

→물체와 영혼은 모두 유한실체이다.

그리고 이 두 유한 실체와 구분되는 무한 실체로서의 신이 등장한다.

데카르트는 그의 대표작인 『성찰(Meditationes)』에서 방법적 회의 끝에 “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을 제일 원리로 삼게 된다.

→코기토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코기토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심하고 회의하고 부정하고 고민하는 정신작용, 정신적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중세적인 질서에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사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에 의해 온 것이다. 계시적 인식은 경험적 인식과는 다르다. 경험적 인식은 외부 사물을 보고 인식을 하는 것이지만 계시는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 속에 생기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계시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사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계시로 중세의 좁은 의미에서의 계시와는 달리 신에 의한 계시가 아닌 나 스스로에 의한 사유이다.

⇒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나’의 개념이 명확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 원리를 이어 ‘명석-판명(明哲-判明)’의 개념이 등장한다.(오늘날의 ‘명료’, ‘분명’, ‘애매’ - ‘모호’와 비교)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잡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관념이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안의 관념들 중에서 확실한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관념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 관념은 논리학과 수학의 관념들이라고 한다. 그것이 가장 clear하고 distinct한 것이다.

명료/명석한clear 것 ⇔ 애매한ambiguous 것

판명/분명한 것distinct ⇔ 모호한vague 것

### 제3강 2교시

#### ◆ 스피노자의 사상 1

이 원리를 이어 ‘명석-판명(明哲-判明)’의 개념이 등장한다.(오늘날의 ‘명료’, ‘분명’, ‘애태’ - ‘모호’와 비교) 이어서 神이 등장한다. 데카르트는 유한한 내가 무한한 신을 생각하는 것은 신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보았다. 그리고 신이 인간의 영혼에 명석-판명한 관념들을 넣어주었고 이 관념들을 사용해서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존재와 사유의 일치’)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해 가지는 관념이 사물의 리얼리티와 어떻게 합치하는가?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해 사유한 것이 실제의 존재와 일치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서양철학의 근본문제 중 하나이다.

⇒ 존재와 사유의 일치 테제는 칸트와 흄에 의해서 깨진다.

데카르트는, 나는 대상에 대해 피상적인 지각을 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신이 내게 부여해준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가지고서 나는 대상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존재와 사유의 일치는 신이 보장해주는 것이 된다. ⇒ 이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명석-판명한 관념들은 주로 논리학적-수학적 관념들로서 이 관념들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합리론(rationalism)’이라 불린다. 기계론은 그 결과라 할 수 있다.(중세 철학의 계승: 신, 영혼, 세계. 그러나 순서가 다름)

⇒ 이런 식의 데카르트의 이야기는 대단히 탈중세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중세철학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세철학의 세 가지 특수 존재론 ⇒ 신, 영혼, 세계

데카르트에겐 영혼, 즉 코기토가 먼저이고 다음이 신, 그 다음이 세계이다.

#### ▲ 스피노자의 사상

스피노자는 데카르트를 이어 합리주의적 사고를 전개했다. 그의 주저 『에티카』의 1장은 神을 다루고 있다. 스피노자에게서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이다.

⇒ 스피노자는 중세적 언어로 중세를 탈피한 사상가이고 라이프니츠는 근대적 언어로 중세로 돌아간 사상가이다.

여기에서 “무한한”의 의미는 무한한 속성들(attributes)로 되어 있음을 뜻한다.(더 정확히 말해 신은 무한한 속성들 “이다”)

신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예) 탁자는 갈색이며, 네모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물은 흐르고 맑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스피노자에게 속성이란 말은 특이한 의미를 가진다.

신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A, B, C...라는 속성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은 A라는 속성이기도 하고 B라는 속성이기도 하고 C라는 속성이기도 한 것이다.

⇒ 나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몸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한** 것이다.

**각 속성들은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한다.** 속성들은 부정 개념을 포함하지만 신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 속성이 곧 신이라면 속성과 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은 오로지 하나인 신이고 속성들은 신이 표현되는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속성들에겐 부정 개념이 포함되지만 신 자체에게는 부정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

**신은 자기원인(causa sui)이다.** 자기원인은 그 **본질essence**이 그 **실존existence**을 함축하는 존재의 성격이다. 본질이 실존을 함축한다 함은 실존을 본질로 한다는 것, 즉 실존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아닌 경우, 즉 실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뜻한다.

⇒ 이것은 그 존재가 실존을 자기의 본질로 한다는 의미이고 ⇒ 실존하지 않을 경우는 그 자신이 아니라는 것 ⇒ 따라서 그 존재는 반드시 실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은 무한하다.** 즉 자체에 있어(in itself) 그리고 자체에 의해(for itself) 존재하는 실체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무제한적임을 뜻한다.

회남자와 같은 전통문헌에는 無外(바깥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無涯라는 말은 절벽이 없다, 즉 가도가도 끝이 없다는 뜻이다.

절대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은 속성들처럼 상대적으로 무한하지 않다는 뜻이다.

**신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항구적으로 지속적임과 다르다. 비존재의 범주를 갖지 않음을 뜻하며, 따라서 시간을 초월함을 뜻한다.

⇒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바깥에 있다는 뜻이다. 계속 지속하는 것은 항구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시간이라는 범주 바깥에 있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가 多와 운동을 부정한 이유

→ 생성 becoming,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무, 즉 비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 바깥에 있는 것이므로 생성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존재의 범주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신은 유태-기독교적 신이 아니다.**

⇒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유태/기독교의 신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유태/기독교의 신은 그가 말한 신의 규정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유태/기독교적인 신은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중세에는 창조, 즉 creatio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중세적 질서가 무너지는 중요한 징후 중 하나가 바로 이 creatio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불기 시작한 것이다. 즉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에게 이러한 말이 쓰인 것이다.

**유태-기독교적 신은 세계를 ‘창조 creatio’ 했고 따라서 자신의 바깥에 타자를 가진다.**

⇒ 타자를 가진다는 것은 그 타자에게 제약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설사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없으면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인간이 신을 경배하므로 신이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인간이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태/기독교의 신은 신의 무제한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자신의 바깥에 타자를 가지는 존재는 무한할 수 없으며 자유로울 수 없다. 신은 절대 유일의 세계 자체이다.**

⇒ 이 세계가 곧 신이다. 이 우주 자체가 신인 것이다. 단 내가 인식하는 것만이 신이 아니고 더욱 무한한 우주 그 자체가 곧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이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주장은 세계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일원론이다.